



보도 일시	2022. 11. 8.(화) 16:00	배포 일시	2022. 11. 8.(화) 16:00
담당 부서	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	책임자	과 장 백지선 (062-370-6301)
		담당자	팀 장 최관수 (062-370-6320)

호남지방통계청 제2회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

- 호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논의 -

- 호남지방통계청(청장 김대호)은 11.8.~11.9.(2일)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지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을 위한 「제2회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포럼」을 개최하였다.
또한, 지역통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「지역통계 우수 지자체 선정」 및 「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」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.
-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는 이번 포럼은 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를 아우르는 지역통계발전포럼으로 지자체·연구기관·대학 등 23개 기관에서 60여 명이 참석하였다.
- 김대호 청장은 개회사에서 지역통계의 발굴·개발과 함께 지역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역통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또한, 2020년 3월에 호남지방통계청에 개소한 통계데이터 광주 센터 홍보를 통하여, 정부가 구축한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지자체와 유관기관 나아가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지역정책수립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부와 민간의 통계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초강연, 전문세션 및 종합토론과 지역통계를 활용한 정책의 우수사례 발표로 구성되었다.
-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기초강연을 통해 '4차 산업시대의 데이터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'이라는 주제로

하루에도 수없이 생산, 소멸되는 공공 및 민간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"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, 지방자치단체의 변화, 지역통계 통합 플랫폼 강화 등이 필요하다"고 강조하였다.

- 전문세션에서는 '공공 및 민간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'을 주제로 '코로나19 전·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변화상', '민간데이터센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', '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제주 생활인구 작성'의 발표가 있었으며,
- 종합토론 시간에도 '공공 및 민간자료를 활용한 정책수립 방안'에 대하여 대학교수, 지역연구원, 지자체 통계담당관 등 지역통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.
- 또한, '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공모전'에서 호남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제주도의 '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'과 익산시의 '통계분석 및 실태조사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책발굴 및 사업추진' 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'광산형 데이터댐 구축 및 개방·분석 시스템 연계 서비스' 사례가 발표되었다.
- 김대호 청장은 지역통계발전포럼이 지역통계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, 앞으로도 호남지방통계청은 '지역정책에 필요한 품질 높은 통계가 생산·활용'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	책임자	과 장	백지선 (062-370-6301)
		담당자	팀 장	최관수 (062-370-6320)
		담당자	주무관	전두용 (062-370-6322)

[붙임] 행사 사진

